

현대사에 빛을 남긴 숨은 개인들의 삶

김명걸 지음 「발굴 한국 현대사 인물」

95년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해방을 맞고도 벌써 반세기가 흘러갔다는 말이다. 한말부터 시작된 근대사 50년까지 더하여 보아도 근현대사는 고작 100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이 지나왔던 발자취는 일찍이 겪지 못한 격동의 세월이었다.

한말, 식민지 시대, 광복과 분단, 한국전쟁. 이후 40년간 겪어야 했던 냉전체제의 이데올로기와 군사 독재정권, 그리고 발전과 성장에 이르기까지 근대사 50년과 현대사 50년은 실타래보다도 더 심하게 얽혀진 채 이렇게 굴러오고 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뒷안길에는 기록되지 않은 주인공들이 있었으니 그 주인공들을 다시 살려 복원시키자는 것이 바로 「발굴 한국 현대사 인물」(한겨레신문사)의 의도이다.

그러나 이 책이 선정한 위인들은 우리가 흔히 모셔오던 영웅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삶을 가꾸온 보통 사람들이며 때론 이데올로기에, 때론 개인적인 물욕에 빠져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다. 비록 인명 사전에서조차 누락된 인물들도 있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살아 숨쉬고 고통스러워하고 갈등하며 패배했으나 역사의 올바른 전진을 위해 바른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개인적인 삶'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근래에 볼 수 없었던 인물사 편집방향의 이같은 점이 첫권부터 나의 숨통을 터준 청량제였던 셈이다. 어렸을 적부터 배워왔던 영웅들의 비범한 능력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

라 때론 역사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흘러가야만 했던 가감없는 그들의 삶에서 진정으로 오늘을 사는데 필요한 지혜를 배울 수가 있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이데올로기에 가려 묻혀 있는 인물,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잘못 알려지거나 그릇 평가된 인물, 영웅에 가려졌으나 현대사 전개과정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인물들을 복원시키고, 재조명하고, 그리하여 다시 찾아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다분히 행운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내 안타까운 것은 남북 이데올로기에 따라 평가절상, 혹은 평가절하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관한 소식이 없다. 북에서는 '영웅'으로 남에서는 '자자미상'에 불과한 반쪽짜리 위인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두고 있다.

책을 놓으면서 가지게 되는 한가지 바람은 광복 5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기필코 '친일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화려한 개인사, 뒤틀린 민족사' 이 책은 모운썬씨를 그렇게 말한다. 친일파 찾기는 우리의 위대했던 친일 위인들을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립투사들을 복원시키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음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뚜렷한 영웅을 부르기 위해서다.

진정한 우리의 역사는 무엇인가. 민족을 이끌 인물들은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만 하는가. 이 책을 덮으며 자문케 되는 물음이다. 박병률 부산시 동구

시와 삶의 밀착 위한 새로운 꿈꾸기

안도현 시집 「외롭고 높고 쓸쓸한」

시인은 꿈꾸는 사람일 터이다. 그 꿈꾸기가 추상적이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 자양분을 얻을 때 시가 건강할 것임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그대에게 가고 싶다」란 시집으로 널리 알려진 안도현 시인의 새 시집 「외롭고 높고 쓸쓸한」(문학동네)은 이 시인이 새로운 꿈꾸기를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꿈꾸기는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고 있다.

작게는 개나리꽃을 꺾어든 것에 대한 반성(이 늦은 참회를 너는 아는지)에서부터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너에게 묻는다)고 스스로 묻기도 하고, '우리는 한번도 목숨걸고 살아본 적이 없었다'(나에게 보내는 노래)라는 반성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뼈아픈 반성은 이 시집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그래서 시인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는 나무를 닮고 싶어한다.(나무)

얼핏 보면 시인 자신에게로 향해 있는 내면의 목소리인 듯한 그런 반성은 시인의 열리지 않은 담담한 목소리로 시화(詩化)되어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므로써 보편화의 길로 향한다. 그런 것들이 이 시집 후반부에 실린 딱딱한 주장을 내세우는 시들보다 더 강한 울림을 준다는 것이 이 시집이 주는 가장 큰 깨달음일 것이다.

이 시집의 제목은 백석(白石) 시인의 '흰 바람 벽이 있어'에서 따온 것이다. 시인 백석이 누구인가! 1930년대 일제 강점기의 민족

적 수탈이 강화되는 시기에 우리의 북방 언어로 시를 쓰고, 만주 벌판을 방황하던 슬픔과 그리움의 시인이 바로 그 아니던가! 그런 절망의 끝에 시인 안도현 역시 다다라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는 그 끝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 시집 서문에서 밝혔듯 '모든 것들이 좀더 가난해지기를, 좀더 외로워지기를, 좀더 높아지기를, 좀더 쓸쓸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점이 바로 이 시집을 과거에 대한 단순한 반성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꿈꾸기의 시도로 비치게끔 하는 요인일 것이다.

이제 시인은 자신을 '키운'—그 말이 시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든, 부정적으로 작용했든—'해직교사'라는 말을 떼고 다시 그토록 그리워하던 교단으로 돌아갔다. 그 속에서 그가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건 그가 '시에다 삶을 밀착시키고 삶에다 시를 밀착시키는 일, 그리하여 시와 삶이 궁극적으로 완전한 하나가 되는 못한다 할지라도, 거의 하나에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그 둥글디둥근 꿈'을 버리지 못하는 한 좋은 시인으로 남을 것임은 분명한 일일 것이다. 강영훈 서울시 구로구

◇독자서평 투고 환영. 2백자 원고지 6매 안팎. 투고자의 성명·주소·직업과 책명, 역자명, 출판사명 등을 명기할 것. 게재된 글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립니다.

●●●●●의 차별성은 이렇습니다

<p>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p> <p>소 설 ▶ 『오에 캔자부로 대표작선집』 『길을 잃어야 새 길을 만난다』</p> <p>인문 과학 ▶ 『한국인의 조형 의식』 『한국인, 조센징, 신조선족』</p> <p>미술 서적 ▶ 『래터링의 역사』, 『선물 포장』, 『포장디자인』</p> <p>대학 교재 ▶ 『몬테소리 교육의 이론과 실제』</p> <p>무 협 지 ▶ 『녹정기』, 『춘추필』</p>	<p>가 격 사 양 (단행본 기준)</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middle;">신 국 판</td>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middle;">편집 (사식 포함)</td>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인화지 출력시</td> <td style="text-align: right;">5,500원</td> </tr>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필름 출력시</td> <td style="text-align: right;">6,000원</td> </tr> <tr>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middle;">사 식</td>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middle;">인화지 출력시</td>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인화지 출력시</td> <td style="text-align: right;">3,000원</td> </tr>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필름 출력시</td> <td style="text-align: right;">4,000원</td> </tr> <tr>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middle;">4×6배판</td>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middle;">편집 (사식 포함)</td>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인화지 출력시</td> <td style="text-align: right;">8,000원</td> </tr>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필름 출력시</td> <td style="text-align: right;">8,500원</td> </tr> <tr>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middle;">사 식</td>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middle;">인화지 출력시</td>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인화지 출력시</td> <td style="text-align: right;">5,000원</td> </tr> <tr>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필름 출력시</td> <td style="text-align: right;">6,000원</td> </tr> </table>	신 국 판	편집 (사식 포함)	인화지 출력시	5,500원	필름 출력시	6,000원	사 식	인화지 출력시	인화지 출력시	3,000원	필름 출력시	4,000원	4×6배판	편집 (사식 포함)	인화지 출력시	8,000원	필름 출력시	8,500원	사 식	인화지 출력시	인화지 출력시	5,000원	필름 출력시	6,000원	<p>혹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 없습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QUARK을 통한 잡지나 사보 레이아웃 ② Photoshop, Illustrator, FreeHand, NoteWriter, Excel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③ Fontographer를 이용한, 나오지 않는 한자 및 지원되지 않는 수식의 해결 능력 ④ 매킨토시뿐 아니라 IBM 워드프로세서에 대한 이해 ⑤ 2급 이상의 타자 속도 ⑥ 교정·교열 및 대지 작업과 제작에 대한 이해 <p>혹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p>
신 국 판	편집 (사식 포함)			인화지 출력시	5,500원																					
		필름 출력시	6,000원																							
사 식	인화지 출력시	인화지 출력시	3,000원																							
		필름 출력시	4,000원																							
4×6배판	편집 (사식 포함)	인화지 출력시	8,000원																							
		필름 출력시	8,500원																							
사 식	인화지 출력시	인화지 출력시	5,000원																							
		필름 출력시	6,000원																							

●●●●● 1110-2410 서울 중로구 안국동 139-1 동신빌딩 201호 전화 / 737-2308 737-2309 팩스 / 737-2309

●●●●●은 이런 경우에 더욱 효율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① 활판을 옵셋으로 바꾸는 경우	② 흑백 사진이 많은 정기 간행물	③ 전집류 출판
④ 장편 무협소설	⑤ 기타 대량의 출판물	⑥ 시한이 촉박한 원고

McIntosh 경력 3년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실력을 가진 분을 새 가족으로 모십니다. 성별, 연령, 신체장애 등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